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인경* · 김정현*¹⁾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The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constraint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Jung, In-Kyung* · Kim, Jung-Hyun*¹⁾
*Dept. of Physical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leisure satisfaction/leisure constraint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convenient sample drawn from 448 students from eleven junior high school in Seoul area.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who perceived their father's rearing attitude as affection-rational explanation performed more of out-door leisure activity with their family.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leisure satisfaction but negatively related with leisure constraint. In addition,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leisure satisfaction/leisure constraint. These results suggest the leisure activity could be increased by father's rearing attitude through improving self-efficacy. Therefore, to improve the leisure activity through increase of leisure satisfaction and decrease of leisure constraint, father should raise their children in love and help to grow their self-efficacy.

Key words: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self-efficacy,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constraint

1) 교신저자: Kim, Jung-Hyun, 221 Heuksuk-dong,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02-820-5378, Fax: 02-817-7304, E-mail: jjhkim@ca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가활동이란 개인이 제약이나 구속 없이 자유롭게 육체적·정신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분전환이나 자신의 소질 개발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Yoon & Bae, 2009). 특히,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재미를 추구하고,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를 이룰 뿐 아니라 학업으로 돌아가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재충전한다(Son, Yoo, & Rhee, 2004; Jin & Kim, 2008).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어 건전한 여가활동은 신체적인 건강 뿐 아니라 올바른 자아형성과 사회성 발달,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이나 삶의 질, 행복,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2004; Park, 2007; Kim & Kim, 2009).

올바르고 능동적인 여가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여가활동 참여 시간, 공간적인 제약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ung, 2014; Ryu & Cho, 2014).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을 중시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절대적인 여가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어진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여가활동시간이나 여가 프로그램 및 공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게임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Jeon & Lee, 2008; Lyu & Lee, 2013). 또한, 지역사회나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클럽이나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과 제약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청소년의 여가활동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이나 양육태도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Song & Lee, 2007; Kim & Kim, 2009; Hong & Kim, 2011; Kim, 2012; Park et al, 2014).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 기대를 일컫는 말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 어려운 과제를 대함에 있어 이를 노력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2006).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여가활동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ylvia-Bobiak & Caldwell, 2006; Kim & Kim, 2009). Sylvia-Bobiak & Caldwell(2006)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적극적인 신체 활동형 여가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andura(1982)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과 자기효능감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Kim & Kim, 2009), 성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Kim, & Kwon, 2008; Yoon & Lee, 2008). Yoo(2013)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여가만족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여가만족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여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여가제약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2009; White, 2008).

자기효능감 이외에도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나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 & Lee, 2007; Hong & Kim, 2011; Kim, 2012; Park et al, 2014).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나는 내적, 외적인 태도나 행동으로(Becker, 1964) 자녀의 전반적인 사고나 발달수준 뿐 아니라 생활습관 형성과 관련이 깊다(Jang & Park, 2007). 청소년들이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게 되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도 애정·자율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가족의 기능이 좋을수록 여가제약은 감소하고, 여가만족도 향상되었으며, 개방적으로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2). 따라서 부모와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양육의 주체였으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되고 가족의 구조와 역할이 변화되면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Lee(2008)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는 자녀 교육이나 지도에 관해 관여하는 반면, 아버지는 공연, 야외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Kim과 Sang(2010)도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있어 여가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여가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won & Lee, 2006; Park & Lee, 2012). 아버지가 온유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성실성이 증가되었고(Park & Lee, 2012), 아버지와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자녀의 경우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Kwon & Lee, 2006)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 Kim, 2013). 또한, 유아시기에 아버지가 인성 지향적으로 유아를 양육하면 자녀의 자기인식이나 정서적 안정이 높아질 뿐 아니라 또래와 함께 상호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되고, 놀이 방해나 놀이 단절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won, 2013).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wang, & Choi, 2003; Cho, Kim, & Heo, 2013). Hong(2009)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발달을 조절함으로써 자기효능감 형성의 중요 요인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Suh, You와 An(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며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은 낮아지고,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양육할 때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의 부모가 성취, 친애, 합리, 개방, 자율적인 태도로 자신을 양육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자녀들의 경우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Hwang, & Choi, 2003; Cho, Kim, & Heo, 2013) 애정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학업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여가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Jung & Kim, 2015). 그러나 실제 여가활동에 대한 물리적 제약 보다는 심리적인 제약이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여가만족과 여가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찾아 변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보다 자녀의 심리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기효능감의 형성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간의 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검증하였을 뿐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간의 관계나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실태를 알아보고, 자기효능감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의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고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효율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정과 교육에서 청소년들의 자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청소년의 여가활동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학생들의 가족생활 영역 지도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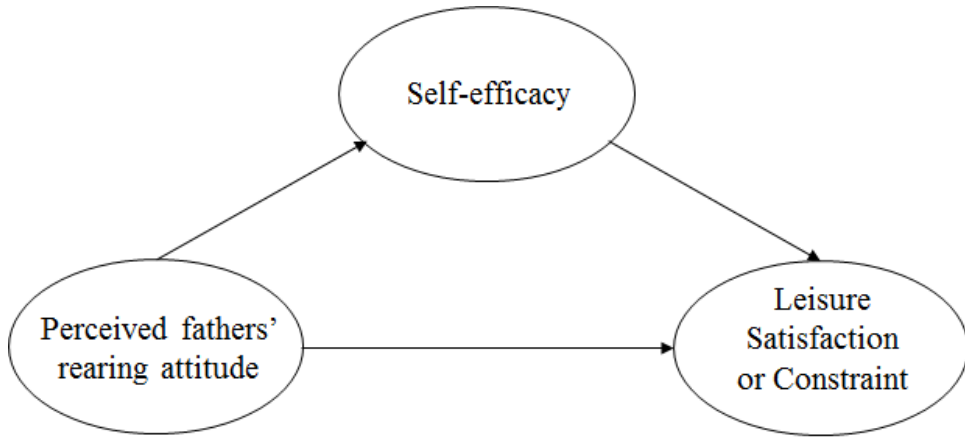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model

첫째,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라 여가활동 실태와 여가만족, 여가제약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기 효능감이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가? (Figure 1)

조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실시되었으며, 총 700부를 배부하여 670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4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서울시교육청 관할 11개 교육지원청 별로 1개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2학년에 재학 중인 448명의 학생(남학생 206명, 여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한 후, 2014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의 정부시에 소재한 중학교 2학년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가활동의 유형이나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설문지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 실태, 여가만족도, 여가제약, 자기효능감,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가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은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 여가활동 동참자,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 동참자, 주된 여가활동 장소, 여가활동 선택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1)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

여가만족과 여가제약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여가만족과 여가제약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여가만족은 사회적 만족과 정서적 만족, 여가제약은 대인적 제약과 개인적 제약의 2개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Variables		Total (n=448)	Variables		Total (n=448)
Gender	Male	206(46.0)	Pocket money (won)	Below 10,000	102(22.8)
	Female	242(54.0)		10,000-50,000	272(60.7)
Grade	High	27(12.7)		50,000-100,000	56(12.5)
	Middle-high	111(24.8)		Over 100,000	18(4.0)
	Middle	142(31.7)	Economic status	High	14(3.1)
	Middle-low	97(21.7)		Middle-high	130(29.0)
	Low	41(9.2)		Middle	243(54.2)
High school	104(23.2)	Middle-low		52(11.6)	
Paternal education	College	238(53.1)	High school	126(28.1)	
	Graduate school	69(15.4)	College	233(52.0)	
	Others	37(8.3)	Graduate school	54(12.1)	
		Maternal education		Others	35(7.8)
Paternal employment	Unemployed	10(2.2)	Maternal employment	Unemployed	95(21.2)
	Manufacturing/technical	46(10.3)		Manufacturing/technical	16(3.6)
	Sales/service	68(15.2)		Sales/service	81(18.1)
	Office job	215(48.0)		Office job	88(19.6)
	Professional	48(10.7)		Professional	64(14.3)
	Others	61(13.6)		Others	104(23.2)

다. 여가만족과 여가제약의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점수화 하였다. 여가만족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여가제약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제약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가만족도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사회적 만족 .885, 정서적 만족 .909로 나타났으며, 여가제약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대인적 제약이 .738, 개인적 제약이 .802로 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Kim(2006)이 개발하여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자기효능 자신감(7문항), 자기효능 자기조절(12문항), 자기효능 과제난이선호(5문항)로 구성되었으며, 총 24문항이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계수는 자기효능 자신감 .860, 자기효능 자기조절 .915, 자기효

능 과제난이선호 .713으로 나타났다.

3)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 척도는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0)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척도 중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의 척도인 7문항만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부터 ‘매우 그렇다’를 4점까지 점수화 하였다. 양육태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합리적 설명형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90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 점수를 사분위로 나눈 후,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이라고 가장 높게 인지하는 1분위 군을 High군(3.71점), 가장 낮게 인지한 4분위 군을 Low군(1.94점), 중간 군인 2, 3분위 군을 Middle군(2.92점)으로 나누어 여가활동의 실태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 자기효능감 수준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의 하위요인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와 여가만족, 여가제약 및 자기효능감의 빈도의 차이는 χ^2 -test로, 평균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Scheffe test로 사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여가제약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적-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3단계의 매개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절차를 수행하였다(Baron and Kenny, 1986). 1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매개적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Sobel, 1982)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들의 여가활동 실태

조사대상자들의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주로 TV 시청이나 낮잠과 같은 휴식활동(26.8%)과 인터넷 게임 같은 오락 활동(26.8%)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독서나 음악 감상과 같은 취미활동(16.7%), 스포츠 활동(13.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종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21.9%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17.9%가 취미활동, 17.2%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 양육태도의 지각 정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주로 누구와 여가활동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1.8%의 학생들이 친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는 27.0%, 혼자서 하는 경우는 20.3%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군은 친구(41.1%)나 가족(40.3%)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적게 지각하는 군의 경우 13.3%만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 < 0.001$). 또한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 동반자를 묻는 질문에 57.8%가 친구라고 응답하였으며, 27.9%가 가족, 12.9%가 혼자라고 응답하였고,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군의 41.9%가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이를 낮게 지각하고 있는 군의 19.4%만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Kim 등(2013)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으로 주로 취미·오락 활동과 휴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Koo와 Ahn(2009)의 연구에서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휴식활동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활동 위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Son 외(2004)의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중학생들이 친구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하였으며,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의 연구결과(2010)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이 문화예술 관람활동과 취미·오락 활동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Table 2. Leisure activity status of participants

n(%)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 affection-rational explanation			Total (n=448)
		Low (n=98)	Middle (n=226)	High (n=124)	
Most participated leisure activity	Cultural and art Activity	9(9.2)	24(10.6)	11(8.9)	44(9.8)
	Travel and tourism	1(1.0)	11(4.9)	9(7.3)	21(4.7)
	Sports activity	10(10.2)	34(15.0)	16(12.9)	60(13.4)
	Relaxing activity	33(33.7)	54(23.9)	33(26.6)	120(26.8)
	Hobby	11(11.2)	35(15.5)	29(23.4)	75(16.7)
	Entertainment	31(31.6)	66(29.2)	23(18.5)	120(26.8)
	Other social activities	3(3.1)	2(0.9)	3(2.4)	8(1.8)
$\chi^2 = 20.503$					
Preferred leisure activity	Cultural and art Activity	22(22.4)	52(23.0)	24(19.4)	98(21.9)
	Travel and tourism	13(13.3)	25(11.1)	20(16.1)	58(12.9)
	Sports activity	10(10.2)	41(18.1)	26(21.0)	77(17.2)
	Relaxing activity	14(14.3)	32(14.2)	16(12.9)	62(13.8)
	Hobby	14(14.3)	39(17.3)	27(21.8)	80(17.9)
	Entertainment	22(22.4)	35(15.5)	11(8.9)	68(15.2)
Other social activities	3(3.1)	2(0.9)	0(0.0)	5(1.1)	
$\chi^2 = 19.449$					
Participants of leisure activity	Alone	30(30.6)	38(16.8)	23(18.5)	91(20.3)
	Family	13(13.3)	58(25.7)	50(40.3)	121(27.0)
	Fiends	54(55.1)	127(56.2)	51(41.1)	232(51.8)
	Society member	0(0.0)	0(0.0)	0(0.0)	0(0.0)
	Others	1(1.0)	3(1.3)	0(0.0)	4(0.9)
$\chi^2 = 27.192^{***}$					
Preferred participants of leisure activity	Alone	19(19.4)	24(10.6)	15(12.1)	58(12.9)
	Family	19(19.4)	54(23.9)	52(41.9)	125(27.9)
	Fiends	57(58.2)	145(64.2)	57(46.0)	259(57.8)
	Society member	0(0.0)	1(0.4)	0(0.0)	1(0.2)
	Others	3(3.1)	2(0.9)	0(0.0)	5(1.1)
$\chi^2 = 27.137^{***}$					
Major leisure activity place	Home	39(39.8)	81(35.8)	51(41.1)	171(38.2)
	Indoor leisure activity place	13(13.3)	31(13.7)	20(16.1)	64(14.3)
	Outdoor leisure activity place	18(25.5)	56(24.8)	42(33.9)	116(25.9)
	Cyber or mobile space	25(25.5)	44(19.5)	10(8.1)	79(17.6)
	Others	3(3.1)	14(6.2)	1(0.8)	18(4.0)
$\chi^2 = 22.781^{**}$					

p<.01, *p<.001

청소년들이 주로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를 알아본 결과, 자신의 집에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야외공간(25.9%), 사이버나 모바일 공간(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높이 지각하는 학생들의 경우 33.9%가 야외공간에서 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사이버나 모바일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는 8.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 군의 25.5%가 사이버나 모바일 공간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의 지각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Son 외(2004)의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중학생들이 가정이나 PC방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 자기효능감 수준

조사대상자들이 아버지 양육태도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지각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 여가제약 및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여가 만족도 하위요인 중 정서적인 만족 점수가 3.72점으로 높았고, 사회적 만족이 3.46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군인 High군의 정서적 만족 및 사회적 만족도는 각각 4.03점과 3.75점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설명형으로 지각하는 정도에 따른 여가만족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본 조사대상 중학생들은 여가제약과 관련하여 대인적인 제약(2.46 점) 보다는 개인적인 제약(2.51 점)을 다소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지각하지 않는 학생들은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에 비해 여가활동을 위한 대인적 제약과 개인적 여가제약을 모두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원간에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표현하는 경우 가족의 여가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애정-자율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들과 함께 주말 가족 여가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Song & Lee, 2007; Hong &

Kim, 2011)에서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Kim(2012)도 가족의 기능이 좋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들이 느끼는 여가만족이 높고, 여가제약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부담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올바른 신체·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여가제약의 문제를 해결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자기효능 자기조절이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효능 자신감이 3.84 점, 자기효능 과제난이선호가 3.2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이라고 높이 지각하는 군의 경우 자기효능 자신감이 4.17점, 자기효능 자기조절이 4.16점으로 그렇지 않은 군의 3.56점, 3.79점보다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합리적, 성취적으로 지각하는 자녀들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Noh & Park, 2001; Kim, 2009)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높은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바 있다(Moon, 1999). 이는 아

Table 3.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constraints, and self-efficacy by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affection-rational explanation).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 affection-rational explanation			Total	F-value	Scheffe's grouping
		Low	Middle	High			
Leisure satisfaction	Social	3.31 ^{bl} (0.60)	3.36 ^b (0.66)	3.75 ^a (0.79)	3.46 (0.71)	15.38 ^{***}	a>b
	Emotional	3.59 ^b (0.58)	3.61 ^b (0.66)	4.03 ^a (0.75)	3.72 (0.69)	18.05 ^{***}	a>b
Leisure constraint	Interpersonal	2.76 ^a (0.70)	2.49 ^b (0.68)	2.17 ^c (0.76)	2.46 (0.74)	19.51 ^{***}	a>b>c
	Intrapersonal	2.84 ^a (0.72)	2.56 ^b (0.66)	2.16 ^c (0.75)	2.51 (0.74)	27.69 ^{***}	a>b>c
Self-efficacy	Self-confidence	3.56 ^b (0.92)	3.79 ^b (0.87)	4.17 ^a (1.11)	3.84 (0.98)	11.58 ^{***}	a>b
	Self-regulatory efficacy	3.79 ^b (0.72)	3.79 ^b (0.70)	4.16 ^a (0.97)	3.89 (0.80)	9.48 ^{***}	a>b
	Task-difficulty preference	3.16 (0.89)	3.17 (0.77)	3.37 (0.90)	3.22 (0.84)	2.72	

1) Mean(S.D.)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p<0.001

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애정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정서적·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버지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버지 뿐 아니라 자녀도 서로를 이해하고, 건전한 부모-자녀 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여가만족, 여가제약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애정적-합리적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여가제약 및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가제약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갖는 경우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Moon, 1999; Yang, 2011)나 여가활동 참여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 애정적으로 바꾼다는 연구결과(Hong & Kim, 2011)와 유사한 경향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

라, 자녀가 여가활동에서 느끼는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가 만족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여가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 만족도와 여가 제약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여가 제약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Kim & Kim, 2009), 여가활동을 하는 성인이나 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이 참여하지 않는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Kang, Kim, & Kwon, 2008; Yoon & Lee, 2008)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여가 제약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제약의 대인적 제약과 자기효능감의 자기효능 자신감, 자기효능 과제난이도선택이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개인적인 제약은 자기효능 자신감과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Lee & Song(2011)도 운동자기효능감은 여가제약을 감소시키며, 그로 인해 운동여가활동 참여율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자신감이나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약을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constraint, and self-efficacy

	1	2	3	4	5	6	7	8
1.	1							
2.	.236**	1						
3.	.237**	.777**	1					
4.	-.308**	-.351**	-.304**	1				
5.	-.320**	-.306**	-.343**	.587**	1			
6.	.182**	.165**	.153**	-.500**	-.441**	1		
7.	.205**	.416**	.422**	-.061	.019	-.034	1	
8.	.093*	.317**	.171**	-.245**	-.048	.180**	.325**	1

*p<.05, **p<.01

1: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2: social leisure satisfaction, 3: emotional leisure satisfaction, 4: interpersonal leisure constraint, 5: intrapersonal leisure constraint, 6: self-confidence, 7: self-regulatory efficacy, 8: task-difficulty preference

4.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에 미치는 영향

본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6>과 같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전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공선진단(Collinearity diagnostics)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값은 1.824-2.042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모든 변수들의 VIF(분산팽창계수)값이 1.069-1.173으로 10이하의 값을 가지며, 공차한계 값이 모두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상에는 문제가 없어 회귀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ong, 2013).

먼저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2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모델 I에서는 여가만족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beta = .198, p < 0.05$)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총 설명력은 9.1%였다(Table 5). 이는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이라고 높이 지각할수록 여가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난이선호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 II의 경우 설명력은 28.3%로 모델 I보다 19.2% 증가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beta = .115, p < 0.05$), 자기조절($\beta = .359, p < 0.001$), 과제난이선호($\beta = .160, p < 0.01$) 모두 유의적인 정적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는 자녀의 여가만족을 높여주는 요인임과 동시에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난이선호와 같은 자기효능감 역시 여가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경우 여가에 대한 만족이 높아지며, 가족의 응집력이나 적응력,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경우 청소년의 여가만족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Song & Lee, 2007; Kim, 2012; Park et al, 2014).

Table 5.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on leisure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Model I			Model II		
		B	SE	β	B	SE	β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193	.052	.198 [*]	.077	.047	.079
Self-efficacy	Self-confidence				.079	.032	.115 [*]
	Self-regulatory efficacy				.306	.041	.359 ^{***}
	Task-difficulty preference				.126	.038	.160 ^{**}
R ²		.106			.300		
Adjusted R ²		.091			.283		
F		7.266 ^{***}			17.422 ^{***}		

*p<.05, **p<.01, ***p<.001

Table 6. Effects of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self-efficacy on leisure constraint

Independent variable		Model I			Model II		
		B	SE	β	B	SE	β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313	.049	-.318 ^{***}	-.243	.044	-.247 ^{***}
Self-efficacy	Self-confidence				-.310	.030	-.453 ^{***}
	Self-regulatory efficacy				.051	.038	.061
	Task-difficulty preference				-.055	.035	-.069
R ²		.161			.367		
Adjusted R ²		.148			.352		
F		12.065 ^{***}			24.080 ^{***}		

***p<.001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여가제약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Table 6), 모델 I에서는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가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beta = -.318, p < 0.001$)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아버지 양육태도의 총 설명력은 14.8%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델 II의 설명력은 35.2%로 총 20.4%가 증가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beta = -.453, p < 0.001$)이 여가제약에 유의적인 부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가 여가제약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신감과 같은 자기효능감이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의미하며, 가족의 기능이 긍정적인 경우 여가제약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Kim, 2012).

5.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여가만족과 여가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을 근거로 세 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 중 자기효능 자신감이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여가만족과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자기효능 자신감의 매개효과 분석 첫 번째 단계로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

Table 7.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leisure satisfaction

	Step	Variable		B	SE	β	Adjusted R ²	F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elf-confidence	1 step (Independent → Mediated)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Self-confidence	.255	.072	.177***	.082	7.114***
	2 step (Independent → Dependent)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Leisure satisfaction	.210	.048	.214***	.101	8.581***
	3 step (Independent, mediated → Dependent)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Self-confidence	Leisure satisfaction	.187 .100	.049 .034	.191*** .145**	.118	8.503***
Self-regulatory efficacy	1 step (Independent → Mediated)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Self-regulatory efficacy	.229	.061	.194***	.053	4.706***
	2 step (Independent → Dependent)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Leisure satisfaction	.210	.048	.214***	.101	8.581***
	3 step (Independent, mediated → Dependent)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Self-regulatory efficacy	Leisure satisfaction	.097 .355	.046 .039	.098* .419***	.261	20.436***
Task-difficulty preference	1 step (Independent → Mediated)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Task-difficulty preference	.126	.064	.102	.006	1.396
	2 step (Independent → Dependent)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Leisure satisfaction	.210	.048	.214***	.101	8.581***
	3 step (Independent, mediated → Dependent)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Task-difficulty preference	Leisure satisfaction	.189 .221	.046 .036	.195*** .279***	.171	12.811***

*p<.05, **p<.01, ***p<.001

태도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beta=.117, p<0.001$)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여가만족에 유의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beta=.214, p<0.00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 자신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매개변수인 자기효능 자신감을 투입한 결과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었으며($\beta=.191, p<0.001$), 설명력은 10.1%에서 11.8%로 증가하여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 자신감이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간의 관계에 있어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효능 자신감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Sobel test로 검증한 결과, Z값은 2.263($p<0.001$)로 나타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자기효능감 중 자기효능 자기조절이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여가만족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한 결과,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beta=.194, p<0.001$)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여가만족에 유의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beta=.214, p<0.001$)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 자기조절을 함께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자기효능 자기

조절을 투입한 결과,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의한 여가만족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beta=.098, p<0.05$)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10.1%에서 26.1%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중 하위요인인 자기효능 자기조절은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여가만족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Sobel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Z값이 3.471($p<0.001$)로 나타나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지각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여가만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Hwang & Choi, 2003; Cho, Kim, & Heo, 2013),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합리적이며 애정을 바탕으로 양육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h, You, & An, 2008). 따라서 아버지가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의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고, 만족감을 더 많이 느껴 청소년기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효능감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과제난이선호에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과제난이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 매개

Table 8. Mediating effects of self-conf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leisure constraint

Step	Variable		B	SE	β	Adjusted R ²	F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elf-confidence	1 step (Independent→Mediated)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255	.072	.177***	.082	7.114***
	2 step (Independent→Dependent)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323	.046	-.328***	.159	14.085***
	3 step (Independent, mediated →Dependent)	Perceived father's rearing attitude Self-confidence	-.246 -.321	.042 .029	-.250*** -.469***	.537	33.055**

p<.01, *p<.001

효과 분석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신호는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효과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 중 자기효능 자신감이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beta=.117, p<0.001$)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가제약에 유의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beta=-.328, p<0.00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에서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 자신감을 동시에 투입하여 여가제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자기효능 자신감을 투입한 결과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의한 여가제약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beta=-.250, p<0.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15.9%에서 53.7%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 자신감은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제약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Sobel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Z값이 $-3.373 (p<0.001)$ 로 나타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이 동일하게 있더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양육하는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을 적게 느끼며, 이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여러 제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함에 있어 여가 제약을 슬기롭게 극복함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을 느껴 자신의 신체 발달과 자아존중감, 사회성, 책임감등의 향상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다시 학업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의 일을 더욱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는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자녀를 애정을 갖고 합리적 설명을 통해 양육하여 자녀가 이를 높이 인지할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제약을 인지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이를 매개로 제약을 극복하여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다양한 여

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지역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여가만족과 여가제약의 상호관련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고,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가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고 여가제약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여가만족 수준은 높은 반면 여가 제약의 인지도는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를 애정으로 양육함으로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다양한 여가제약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여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가활동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갖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가활동을 통한 신체적·정서적 건강 상태 유지를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족 특히,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애정과 합리적 설명을 바탕으로 양육하여 부모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중심의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지각할수록 여가만족이 높고 여가제약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도 여가만족과 여가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여가만족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중 자기효능 자신감과 자기조절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지각할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여가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즉 신체적·정신적 발달뿐 아니라 학업과 학교생활로부터 얻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자신감과 자기조절 등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으로써 여가만족을 높여 청소년기에 적절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애정을 바탕으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을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 스스로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신체적·심리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여가제한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지각하는 경우 자신감을 높여주어 직·간접적으로 여가제한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에 의해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어려움 뿐 아니라 여가프로그램이나 여가공간이 부족하여 여가제한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애정-합리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여 자녀의 자신감을 높여 준다면 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찾아 즐길 수 있는 대처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여가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특히 아버지가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양육태도를 함양하여 이를 가정생활에서 실천할 때 자녀들이 충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뿐 아니라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건전한 여가프로그램 개발이나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찾아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기술·가정교과 등의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가족행동 영역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과 가족 건강성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가족생활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인 양육태도 함양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자녀 상담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인구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집단에 일반화시키기에 제약이 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된 설문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손실률이 높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좀 더 다양한 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한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었으나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acker, W. C. (1964).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rver*. New York: Russell Sage.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ron, R.M., & Kenny, D.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173-1182.
- Cho, J. H., Kim, D. G., & Heo, G. (2013).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self-efficacy and 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5(3), 613-624.
- Choi, S. B.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ivation,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negotiation efficacy, and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3(4), 145-456.
- Hong, S. & Kim, S. H. (2011). The affects on the parents' nurturing behavior &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satisfaction level of weekend family leisure program. *인/지발달중재학회지*, 2, 111-139.
- Hong, Y. R. (2009). Effects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school age communication on self-efficacy of school-ag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5(4), 392-400.
- Hwang, H. J., & Choi, Y. W. (2003). The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Social Science Review*, 22(1), 285-304.
- Jang, Y. A. & Park, J. H. (2007).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2), 69-85.
- Jin, K. T. & Kim, W. S.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constraint,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and leisure satisfaction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port Science*, 20, 89-102.
- Joung, J. B. (2014).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traits on leisure constraint and leisure continuance.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3(5), 641-650.
- Jung, I. K. & Kim, J. H. (2015).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constraint on smart-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Journal of Leisure, Park & Recreation Studies*, 39(1), 67-84.
- Kang, B. W. (2004). The causal relationship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on school satisfaction of youth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21, 741-751.
- Kang, H. W., Kim, J. T., & Kwon, I. K. (2008).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level of sport leisure activity of the elderly in welfare center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2(3), 231-239.
- Kim, D. K., Jeon, J. Y., & Lee, S. J. (2008). Test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and aggression in the relation between juvenile leisure constraint and cyber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5), 157-179.
- Kim, H. S. (2006). The relationship among behavioral inhibition/behavior activation system,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19(2), 1-23.
- Kim, H. W., & Jang, S. K. (2010). The father's participation on rearing of children and what children understand on this images.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4(3), 29-48.
- Kim, K. S. (2012). SEM analysis on the family function, communication of parents,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satisfaction among Korea youth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6(2), 1-13.
- Kim, M. K., Seo, J. E., & Kim, Y. C. (2013). Effects of the leisure awareness and leisure constraints affecting sociabil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regard to gender. *Journal of Leisure Studies*, 11(2), 119-136.
- Kim, S. H. & Kim, C. H. (2009). Level of participation of youth in different leisure activities and its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6(1), 425-436.
- Koo, C. M. & Ahn, B. W. (2009). Verification of relationship model of physical self-preception, leisure activity participant motivation, constraint factor and flow experience for the youth peopl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8(4), 83-95.
- Kwon, H. K.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verbal control modes, children's self-efficacy, social competence, and interactive peer play. *Journal of Korean*

- Child Care and Education*, 9(5), 321-334.
- Kwon, J. H. & Lee, E. H. (2006).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17(1), 325-351.
- Lee, B., & Kim, K. S. (2013).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self-control ability. *육아지원연구*, 8(2), 47-64.
- Lee, H. K., & Song, S. S. (2011). The effect of exercise self-efficacy and leisure constraints on physical activity.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2(3), 27-42.
- Lee, Y. H. (2008).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measuring mother and father shared care-giving.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2(2), 189-210.
- Lyu, S. O. & Lee, H. (2013). The influences of leisure constraints on adolescents' internet game addiction. *Tourism and Leisure Studies*, 25(4), 289-305
- Moon, H. J. (1999). A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1), 91-122.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Youth addiction and recreational survey*.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Park, G. I & Lee, J. M (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traits. *The Korea Parents Education Association*, 9(2), 5-20.
- Park, K. D., Choi, J. M., Kim, J. Y., Oh, S. Y. (2014). The study of relation between students' school life adaption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sports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Physical Education*, 18, 71-82.
- Park, H. R.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for leisure activity on school adap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1(4), 5-18.
- Ryu, M., & Cho, H. (2014). University students' Propensity toward smart-phone addiction affects their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1), 47-68.
- Sobel, M. E. (1982).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Son, S. W., Yoo, C. J., & Rhee, S. D. (2004). Activation plan for middle school students leisure activities and patterns. *Education Research Studies*, 9, 613-636.
- Song, J. J. (2013). *SPSS/AMOS statistic analysis methods for writing article*. 2nd ed. Kyunggi: The twenty-first century Co
- Song, J. S., & Lee, Y. K. (2007). Th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family leisure on the healthy family and family leisure attitude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Je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 183-194.
- Sylvia-Bobiak, S. & Caldwell, L. (2006). Factors related to physically active seizure among college students. *Leisure Science*, 28(1), 73-89.
- Suh, K. H., You, J. M, & An, K. M. (2008). Predictors of social anxie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 on of behavioral inhibition, parental attitude,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3), 675-693.
- White, D. D. (2008). A structur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in outdoor recreation. *Leisure Sciences*, 30, 342-359.
- Yang, K. S.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2), 75-84.
- Yoo, C. H. (2013). The effects of intrinsic participation motive on self-efficacy and leisure satisfaction for university liberal arts of golf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Golf Studies*, 7(2), 110-121.
- Yoon, I. J. & Bae, E. (2009). Changes in leisure activity and effects of economic activity on leisure activity: a comparison of results of the time use survey of 1999 and 2004. *Journal of Leisure Studies*, 7(2), 89-111.
- Yoon, J. M. & Lee, J.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rticipation of sport active leisure and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for women.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17(4), 379-388.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여가만족 및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11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448명의 남녀학생이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합리적 설명형으로 지각할수록 가족과 여가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으로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만족과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여가제약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아버지의 애정-합리적 설명형 양육태도와 여가만족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과 자기조절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가제약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여가만족을 높이고, 여가제약을 낮춤으로써 여가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양육방식과 함께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5년 05월 19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05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06월 26일